



특·별·초·대·석

반도체용 PE-CVD장비, Gas Supply System을 생산하고 있는 아토가 무재해 목표 7배를 달성했다. 여기에는 안전보건시스템을 기반으로 참여하는 안전 정착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안전보건시스템이 아토에 정착되기까지 주춧돌 역할을 했던 환경안전팀 김설기 팀장을 만나 보았다.



주식회사 아토 김 설 기 환경안전팀 팀장

취재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식회사 아토에 대해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주식회사 아토는 1991년 9월 27일에 설립되어 매년 평균 110%의 고성장을 하고 있는 전문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주요 생산은 반도체를 가공하는 메인 공정장비인 “반도체용 PE-CVD”를 비롯해 특수가스 공급 조절장비를 생산하고 있으며, 반도체 중공 FAB LINE의 부분 또는 전체 이설 및 Set Up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2004년 “제1회 대·중소기업협력대상”에서 신기술 개발에 따른 중소기업청장 표창을 받았고, 2005년 KOSHA 18001 도입하고 안전보건시스템이 정착되면서, 2006년에 산재예방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두는 금년 무재해 목표 7배를 달성하는데 밑거름 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문화가 꽃피는 아토가 될 수 있도록 아토 가족 모두는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금번 무재해목표 7배 달성을 축하드립니다. 무재해목표 7배 달성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안전은 혼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 안전입니다. 오늘 무재해 목표 7배를 달성한 것도 어느 누가 잘해서 이룩한 성과는 아닙니다.

특히, 경영주의 확고한 안전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우수한 안전활동이 있던들 오늘과 같은 성과는 거두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의 무재해 목표 7배 달성은 사장님을 비롯해서 아토 가족 모두가 성심을 다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재해 목표 7배 달성에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지다.

무재해 아토를 이끌기 위해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 안전보건시스템 마련이 가장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전보건시스템을 운영·적용하면서 직원들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전파하고, 자율 이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의욕을 높인 것이 오늘 무재해 목표 7배 달성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봅니다.

처음 적용할 때만 해도 근로자들과 대립도 있었지만, 지금은 강제가 아닌,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안전보건시스템이라는 것을 아토 가족을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안전업무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는지요.

어떤 업무나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 업무는 없습니다. 우리 안전환경팀도 안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려움을 느낀 적이 많습니다. 그 중 안전에 대한 동기부여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동기부여를 위해 근로자가 안전에 깊이 인식하고, 안전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찾고, 시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포상 제도이며, 경쟁을 유도한 안전활동, 안전퀴즈 대회, 포스터 공모전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단발적으로 이루어 지다니 효과 또한 단발적으로 발생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이벤트성 안전활동을 찾아야 하는데 여기서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벤치마킹과 정보를 교류를 통해 우리 아토만의 것으로 적용시켜 나갈 것입니다.


무재해 사업장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안전 활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 팀장님께서서는 무엇을 강조했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요.

지금까지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은 점검부분과 교육 부분입니다. 특히 교육부분에 이수에 따라 인사고가에 반영하고 있어, 근로자 90% 이상 참여하는 참여율 높은 안전활동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아차사고신고제를 실시하여 현장내 잠재위험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이는 지금 제안제도로 발전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안전증제도, 부서별 무재해 운동, 금연운동, 근로자 체력증진 프로그램 도입 등 많은 안전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객과 저희 작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 고객사에 파견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휴먼에러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먼저 고객사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아토의 안전보건시스템을 적용시켜 관건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객사의 안전보건시스템과 융화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그 곳의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앞으로의 할 일입니다.

다음은 휴먼에러에 대해서는 크게 인적인 요소와 시스템적인 요소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인데, 작업 투입전 작업계획 및 절차 수립, 안전수칙 재교육 등으로 안전의식을 강화시키고, 안전관리자를 라인별 상주시켜 밀착된 안전관리로 휴먼에러를 잡을 계획입니다. 

〈최종덕 기자〉

